

이재경 민주 혁신위원장 내정자 사퇴

이재명 리더십 '타격'

이재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이사장이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선임된 지 약 10시간만에 '천안함 자폭설' 등의 논란으로 결국 사의를 표명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치명타를 입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기구 위원장에 이재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선임했다.

비명계 "당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는 것은 문제" 이재경, '천안함 자폭설' 등으로 결국 자진 사의 이재명, 인선에 "주변 의견 참조해 잘 찾아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기구 위원장에 이재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선임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약 170석의 정당을 이끌려면 여러 바람을 잡재우고 통합시켜나가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혁신위원장 인선을 계기로 이 대표에게 그런 역할을

수행할 자질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철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명운을 좌우할 혁신위원장이려면, 당의 원로들과 중진의원들, 그리고 오랜 세월 당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심사숙고해서 선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결국 혁신위원장 인선이 이 대표의 리더십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 목소리도 이어진다. 이 대표가 당내 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인선 절차에서부터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비명계 초선 의원은 "지금 당의 위기인데 혁신위원장으로 당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는 것은 문제"라며 "지도부가 혁신위 역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다른 한 재선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혁신에 대해서는 기대를 접었고 의원총회에서 혁신위원장 후보를 주장하는 등 대책을 세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의 사퇴 의사를 표명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다음 혁신위원장은 어떤 점을 고려했나"라고 질문에 "역량 있고 신망 있고 그런 분들을, 주변 의견을 참조해서 잘 찾아봐야 되겠다"고 답했다. /뉴시스

오늘 도의회 정례회 개최

22일까지... 내일부터 이틀간 도정·교육행정 질문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 등 안건 처리

전라북도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7일 제40회 정례회를 열고 오는 22일까지 16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8일부터 이틀간 10명의 의원이 도지사과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에 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의안을 상임위원회로 심사한 뒤 오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먼저, 7일 오후 2시에는 개회식에 이어 건의·결의안을 의결하고 국회와 정부 등에 도정 현안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도정 및 교육·학에 행정에 관한 질문은 8일, 현숙(비례대표)·한정수(익산)·오현숙(비례대표)·최형열(전주)·강동화(전주) 의원이 9일은 강태창(군산1)·윤영숙(익산)·나인권(김제1)·황영석(김제2)·진형석(전주) 의원이 각각 도지사과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에 행정 현안에 대해 질문한다.

또한 전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지난해 수입과 지출 및 예비비 지출의 적법·타당성을 심의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결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오는 15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를 열어 심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는 14일까지 결산안, 조례안 등 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장 및 민생 현장을 찾아 도민과 소통할 예정이다.

이어 22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결산안 등의 의안과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한 뒤 폐회한다.

국주영은 의장은 "제12대 전북도의회 개원 1년을 맞아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전북 아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와 새만금 세계잡채리 성공 개최,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등 도정 주요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지난 5일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이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 함께 민생조례 와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다.

"더불어다 함께 민생조례 추진할 것"

김정기 전북도의회 의원, 민주 광역의회 네트워크 참여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천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 등 2건 "조례안 2개, 16개 민주 광역의원들이 함께 시도하는 첫걸음 광역의원 간 네트워크 통해 지역 발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16개 광역시도 의원으로 구성된 광역의회 네트워크에 참여해 '더불어다 함께 민생조례'를 발의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책과 경제 파탄, 그리고 오염수 방류 문제를 김주기 위해 야당·노조·언론 탄압에 매달리고 있는 정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마약류 등 유해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민원 조제, 천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 2건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정기 의원은 "최근 무분별한 마약 노출 등으로 인하여 마약류 관련 범죄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전북도에서도 2015년부터 전라북도 마약류 폐해 및 행태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마약사범의 재발을 돕는 시스템 등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조례 개정 추진이유를 설명했다.

불법 마약류 취급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마약류 등 유해 약물 예방 홍보 및 행사 개최 등 예방사업 추진, 예방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일명 천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안 제정을 검토 중이다. "대학생들에게 1,000원으로 아침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호평을 받으면서 실제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 능력 향상, 지역 쌀소비 촉진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라북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를 참고하여, 지역의 농수산물 사용을 권장하고 관련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조례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현재 도내에서도 전북대, 원광대, 전주대, 군산대, 우석대 등 10개 대학에서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하고 있다.

김정기 의원은 "앞서 설명한 2가지 조례안은 민생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16개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들이 함께 시도하는 첫걸음"이라며, "이번에 구축된 광역의원 간 네트워크를 통해 의회의 역할 강화뿐만 아니라 조례 제·개정, 정책발굴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 네트워크는 김정기 의원을 비롯한 이병도(서울), 반선호(부산), 장성숙(인천), 김민숙(대전), 서민석·이귀순(광주), 손병희(울산), 김현욱(세종), 장민수·이재형(경기), 김경숙·임기진(경북), 류경완·손덕상·유형준·한상현(경남), 정창선·이지영(강원), 김명숙(충남), 나광국(전남), 현지홍(제주)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여야 따로 없다" | 민주 김성주 의원 "尹정부 1년, 공약 실천 전무 대통령 공약 점검은 물론, 여야 힘 모아 지정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최근 지역 내 논란이 되고 있는 '전북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조속한 대통령 공약 실천과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의 금융도시 건설과 관련해 박근혜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1년이 넘도록 아무런 공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오늘 이 자리는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닌 대통령 공약을 점검하고 여·야가 어떤 일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발언을 열었다.

김 의원은 현 정부와 이전 정부의 '금융중심지 공약 여부'를 구체적으로 비교하며 "두 정부가 전북의 대신 공약으로 발표하고 선거 기간 중 주요 발언까지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당선 후 국정과제나 금융위원회 활동 등 어떠한 추진이 없었다"고 분석하며 "전북금융중심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통 공약으로 한 목소리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을 겨냥한 국민의힘의 논평을 의식해서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우선적인 국정과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 전주가 자격이 되면 신청하면 된다'라는 무책임한 말과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전북도당의 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지난 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금융중심지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평이 향한 곳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온 민주당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과 불성실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성주 의원은 "전북 발전에는 여·

야 없다. 전북 정치의 힘을 모아갈 것으로 모든 의원들과 연대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오는 10일 예정된 금융위원회 회의를 언급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전북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언급할 것을 주문했다. /뉴시스

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열렸던 특파원 간담회들에서도 민주당에 "제 말을 안 들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등 정치 개혁을 주문했는데 귀국 후에도 당에 쓴소리를 내며 정계에 복귀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귀국 사실을 알리면서도 "국가를 위한 저의 책임을 깊이 생각했다. 대한민국 생존과 국민의 생활을 위해, 제가 할 바를 하겠다"고 참언했다.

이 전 대표의 측근인 한인사는 "이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예북에서 언급한) 그 역할은 더 크게 완충해 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친낙계 "이낙연 귀국해도 당내 문제 개입 안할 것"

이 전 총리, 귀국 후 북콘서트·강연 등 계획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 국무총리가 귀국을 앞둔 가운데 계파 갈등 속에서 민주당 내 비이재명계(비명계) 구심장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친이낙연계 의원들은 이 전 대표의 정계 복귀에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도 그가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는 일각의 예측에는 선을 그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방문 연구원 생활을 위해 출국한 지 약 1년 만인 오는 24일 귀국한다.

이 전 대표는 귀국에서 북콘서트 개최 및 국제관계 특강 등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책 출판인 박민국 생존전략이낙연의 구상'을 펴낸 뒤 미국 현지에서 북콘서트를 연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북콘서트를 열고 "정치는 길을 잃고, 국민은 마음 둘 곳을 잃었

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열렸던 특파원 간담회들에서도 민주당에 "제 말을 안 들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등 정치 개혁을 주문했는데 귀국 후에도 당에 쓴소리를 내며 정계에 복귀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